

|오늘의 말씀|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곧 베 실과 청색 자
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출애굽기 26:1

통 권 _ 제 230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8년 6월 8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전교인수련회가 한달 앞으로!

〈7.11~12일〉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



전교인수련회

“성령 · 함께함 ·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2:44~47)

일시 2008. 7. 11(금) 오후~12(토)오후
장소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읍 오포읍 추자리 29-4)
대상 장년교우 및 동반자녀
내용 12지파에 의한 파노라마성극예배와 성막체험, 공동체 활동, 특강 이용규 선교사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저자 현, 몽골 국제대학교 부총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님의교회

전교인수련회가 7월 11일(금) 오후부터 12일(토) 오후까지 1박2일간 광림수도원(광주 오포)에서 “성령·함께함·하나님나라” (행2:44~47)라는 표어로 열린다. 몇 년동안 교구별로 수련회를 진행해오던데 반해 올해는 전교인이 함께하는 수련회이다. 숙박, 식사, 차량 등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구역장,권찰을 통해 참여교우명단과 인원을 파악하므로 교우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눈으로 보고 몸으로 참

강사로 오게 되는 이용규 선교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독하고 있는〈내려놓음〉과〈더 내려놓음〉의 저자이다. 이용규선교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몽골 선교사로 헌신하여 몽골인들을 섬기고 있으며, 크리스천 대학인 ‘몽골국제대학교’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의 부총장으로 봉직하고 있다.

우동윤 목사

청청한 6월!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황궁에 있다고 해서 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 혼자만 살아 남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4:13-16”

6월이 되면, 태양의 정기를 받은 온갖 나뭇잎은 연초록에서 장년의 당당함을 보이는 진초록으로 변한다. 햇빛에 반짝이며 살랑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을 감동하게 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가슴속 깊이 느끼어 안다. 그 작열하는 태양빛의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닫기 위해 산과 계곡으로 숨어든다.

그 산과 계곡 속에는 가슴에 고인 눈물을 흘리지도 못한 이들이 한숨이 배어있다. 무명용사, 학도의용군, 전투경찰... 모르드개 의 명을 받고 하닥의 탄압에 의연히 맞섰던 에스더처럼 55년 전에 폭력에 맞섰던 많은 이 땅의 순수한 믿음의 순교자들은 지금도 고향과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다.

삼가 그들의 고귀함에 추모의 념(念) 바친다.

하태원 기자



교회행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난새와 유라시안필 초청음악회

지휘 금난새
 연주 유라시안필하모닉오케스트라
 협연 바이올린 임서현

2008년 6월 21일(토) 오후 7시30분
 정신여중고 강당(주님의 교회)

주최 | 주님의 교회 후원 | CBS 기독교 TV방송
 공연문의 | 주님의교회 02-419-5191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난새와 유라시안필 초청음악회

2008년 6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에 지휘자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풍부한 선율의 음악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음악회는 주님의 교회 20주년을 맞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가 펼쳐진다는 뜻에서 의미가 깊다. 온 성도와 이웃이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일시: 2008년 6월 21일(토) 오후 7시 30분

담임목사 주일설교	2면
헌혈프로젝트	3면
행복한 구역모임 1-13교구	3면
유아세레식 최해경 집사	4면

벤엘과 브니엘

창세기 32:24-29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묶여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도록 하시거나 대신 도와주지도 않으십니다. 용기있게 대면해야 하고 직접 이겨야 합니다.



〈박원호 담임목사〉

오늘 본문은 야곱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다시 해보라고 하면 대부분 꿈에 천사가 내려와서 야곱에서 말한 뒤에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오르락 내리락 했지 내리락 오르락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리락 오르락 했다는 말은 천사가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뒤에 이 때 야곱에게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뜻이지만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말은 늘 천사가 야곱과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과 떨어져 계시다가 이 밤에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늘 계시지만 야곱이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집안 사람입니다. 요즈음으로 말씀드리면 모테 신앙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야곱은 어릴 적에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고 아버지의 신앙 모습도 봤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성전을 드나들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다녔고 말씀을 배웠지만 그저 시키니만 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너는 할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수 없이 들었지만 항상 자기는 못한다고, 못한다고 못해 못해 그러다보니 모테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욕심을 위해 달렸고 자신의 힘과 야망으로 오늘까지 살았고 특히 형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형의 자리를 넘겨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낯선 이국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가 자신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과연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과연 형이 나를 그냥 돌리 만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기의 성격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보장한다면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서

원입니다. 역시 야곱다운 거래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데, 그 댓가로 10분의 1을 건다는 것이 너무 쏠쏠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 비로소 깊은 삶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힘이란 것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았지만 형이 한번 분노하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형 앞에서 도망가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형을 속이고 나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그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즈음은 형 에서의 칼에 목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니란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 내가 베고 있는 돌베개는 결코 버림과 외로움의 돌베개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은 결코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배부를 떼고 넉넉한 곳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곳을 벤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돌로 베개 할 그 때는 여러분이 버림받은 때도 아니요 홀로 있는 때도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붙드시는 때입니다. 여러분을 받치고 있는 돌은 결코 여러분을 좌절로 몰아가는 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삶을 성전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남은 문제

20년이 지난 뒤 마침내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벤엘에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은 이제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동안 12 아들을 낳았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소와 나귀와 양과 노비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20전에 빈손으로 하란으로 갔는데, 20년만에 이렇게도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잊고 있었던 형 에서의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먼저 파수군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형을 만나거든 충분한 물질로 보상하겠다고 전합니다. 원하시는 만큼의 소도, 나귀도, 양떼도, 심지어 노비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슴 졸이며 소식을 기다립니다. 제발 형의 마음이 지금이라도 누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심리전까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결국 다시 하나님께 메달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야곱은 홀로 그 밤을 지새울 수 밖에 없었고 무를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 가운데 하나를 보게 됩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밤새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씨름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고 그 관절이 어긋남으로 야곱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축복해주기 전에는 결코 이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때 이 사람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야곱입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이름을 바꾸어주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두려움으로 고통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내게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두려움을 직접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의 대상 앞에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겨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두려움의 대상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지금 문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 자신입니다.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옛날 야곱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이스라엘로서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서도 이겨야 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는 인간 야곱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명의 땅으로 가야합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명

하나님께서 20년간 야곱을 지키시고 축복하신 것은 더 복되고 평안한 야곱을 만드시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두려워할 때 두려움에 묶여 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하도록 하시거나 대신 도와주지도 않으십니다. 용기있게 대면해야 하고 직접 이겨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 지난 날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면, 새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돌로 베개를 베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스스로가 에서를 대적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홀로 돌베개를 베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두려움으로 씨름하시는 분들은, 바뀌어진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30CUP과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프로젝트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수혈 받아 기쁨이 흐릅니다.



적십자에서 우리가 요구한
침상수와 더 많은 간호사들을
보내주지 않은 건 과거 우리의
초라한 성적표(3년 전 50명)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주님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헌혈행사가 열렸다. 참여자가 많아 긴 시간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헌혈행사는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이날만 총 129명이 헌혈을 했고, 시간관계상 행사가 종료되자 헌혈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성도들도 다수였다. 행사를 지켜본 허윤정 자매는 "생명 사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30컵이 담당한 주님의교회 헌혈프로젝트! 우린 대대적으로 광고로 많은 분들께 동참을 호소하기로 했습니다. 강한 인상을 심어줄 동영상이 필요해 제작한 담임 목사님의 출연 c는 대박이었습니다. 역대 출연료의 배용준 권상우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직접 혈액원까지 가서 헌혈해 주신 발걸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문진에서 거절 당할까봐 살짝 긴장하시던 모습은 어린이가 같으셨습니다. 자신감 추천하시어 예배 시간에 황족의 혈통임을 천명하시기도 했지요.

사실 꼭 광고 때문이었습니까? 생명에 대한 교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기회를 맞아 빛을 발한 것 뿐이지요. 500여명의 성도님들께서 팔을 내밀어 주셨고 130여명의 혈액을 채혈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감사와 송구스러움과 감격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혈압, 빈혈... 여러 가지 이유로 문진에서 떨어진 분들도 계셨지만 침상과 문진데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9시간 풀가동에도 불구하고 200명도 채우지 못한 게 못내 아쉽습니다. 뭐라 탓할 수도 없는 게 적십자에서 우리가 요구한 침상수와 더 많은 간호사들을 보내주지 않은 건 과거 우리의 초라한 성적표(3년 전 50명)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헌혈시간 내내 적십자 관계자들은 사과를 하셨지만 어쨌든 헌혈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불편함을 겪어야 했고 기다림에 지쳐 발걸음을 돌이킨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담당 팀인 저희들은 참 행복했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놓고 사람들을 불렀다고 호통 치시는 분들을 보면서 내심 기렸습니다. 기다림에 화가 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줄을 서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가 여러분을 달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썰렁한 방에 서있는 저희를 달래야 했다면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놀라웠던 것은 젊은이들 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남성들 보다 여성들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입니다. 준비로 몇 날 며칠 고생하고 헌혈 당일 12시간 동안 서서 부리나케 뛰어다녀도 피곤치 않았으며 주님의교회의 한 성도인 것에 가슴 벅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교우 여러분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를 올립니다. 헌혈을 하실 수 있었던 분들께는 그 건강함에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쏟아지는 광고와 강권에 헌혈에 대한 부담은 있었으나 발걸음 옮기지 못하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겠지요. 무엇보다 길고 긴 대기 시간을 견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진에서 거절 당하신 분들께 특별히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다른 이를 도울 때는 피보다 값진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의 사랑에 수혈 받아 제 혈관엔 기쁨이 흐릅니다. 참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30컵 김유경(헌혈 행사 홍보팀장)



행복한
구역모임

1-13 교구

사랑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오월의 마지막 주일 (5월 25일) 오후 5시 구역에 배 가는 길에 내리는 햇살은 유난히 푸른 신록과 꽃향기로 더욱 은혜롭다. 막 모내기 끝낸 한 뼉이나 될 듯한 모들이 생명을 키울 푸른 꿈으로 자기들보다 더욱 큰 하늘을 담아버린 만드하게 잘라놓은 논자락에서 한들한들거린다. 잘 자라 잘 익은 알곡이 되어라. 살짝 말을 건넨다.

5월의 마지막 구역예배를 무척 기다렸다.

주님의 교회 구역 중에서 최고의 은혜와 사랑의 구역인(1-13구역)의 저력을 담임목사님께 보여줄 최고의 행운을 안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주의 한 산골마을에서 주님의 교회까지 한주도 빠짐없이 열심히 나오시는 이 우풍집사님

택에서 구역 전체 심방 예배이기에 더욱 즐거웠다.

담임목사님 초대와 함께 장시간 믿음과 신앙의 교제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들의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서정하구역장의 기타 반주와 재치로 "사랑해 주님을" 찬양과 울동을 하면서 더 한층 구역식구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눴다. 밤하늘의 별들처럼 축복된 찬양과 사랑으로 한사람 한사람 구역의 소중함과 공동체를 느꼈다.

아름다운 만남을 기뻐하는 축복의 시간을 보내며 구역 식구 모두가 주님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마 음 으
로 축복
했다.

씨앗은 땅을 잘 만나야하고 땅은 씨앗을 잘 만나야하듯이 우리는 이 사랑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실히 배우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랐다.

가족의 달 마지막 주 구역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복음전하는 구역이 되어야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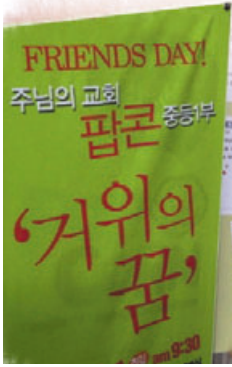
13구역 식구 모두의 삶이 주님중심, 교회중심, 가정중심, 성령의 은혜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다.

서 정하 집사(1-13)



팝콘 중등1부
'프렌즈 데이 (Friends Day)

'거위의 꿈'



지난 6월 1일, 중등1부에서는 제3회 '프렌즈 데이' 행사가 열렸다. 프렌즈 데이는 교회에 처음 온 청소년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준비한 예배이다. 이번 프렌즈 데이는 타악 퍼포먼스 팀 예끼(문화 사역팀)와 함께 '거위의 꿈'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예배와 공연이 함께 어울어진 멋진 시간이었다. 약 한 달 전부터 '거위의 꿈' 프렌즈 데이를 선포하고 클럽을 통해 사행시 공모전을 열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묵상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프렌즈 데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늘을 날아오르겠다는 꿈을 가진 한 마리의 거위를 향해 세상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날 수 없는 것이 너의 운명이라고 말하며 비웃지만, 한 마리의 거위와 같았던 요셉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

대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예배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온 열정을 다해 발로 뛰며 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선생님들과 친구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나아온 중등1부 가족들, 그리고 공연 안에 귀한 메시지를 담아 준 예끼 팀에게도 감사를 전하며,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

중등 1부 임 경순 전도사

호스피스 야외예배



5월 26일 (월)에 호스피스 야외예배를 아산에 있는 파나클랜드에서 40여명의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자연을 벗 삼아 활짝 핀 꽃들과 더불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생의 말기에 아픔을 겪는 환자 분에게 다른 장소에서 봉사를 하며 함께 만나기 쉽지 않지만 서로 반갑게 만나 함께 식사도 나누며 예배를 드리며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호스피스팀을 처음 맡은 이강찬 목사는 하

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와 즐거워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즐거운 시간이라고 했다. 쉽지 않은 호스피스 봉사, 마지막 가는 분들 의지할 것 없는 환자들 곁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잘 돌보아 주기를 바랐다.

우리도 앞으로 가야할 삶의 길 하루하루를 늘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살기를 기도했다. 새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호스피스 봉사자들도 같이 참석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내며 꽃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를 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교회 다른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할 때 보다 더욱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했다.

허 명숙 권사(8-9)

"소리가 들려요"



6월 1일 4층 소회의실에서 장애인사역팀과 소리나눔캠페인본부가 함께 믿음구역(청각 장애인 구역)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나누었다.

이번 나눔을 통해 처음 소리를 듣게 된 교우들의 소년 같이 해맑은 웃음속에서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알았다.

"소리나눔캠페인"을 통해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전혀 없고, 청각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는 68,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독일 SIEMENS사의 디지털보청기를 이용할 수 있다.

소리나눔캠페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소리나눔캠페인 홈페이지 www.sorinanum.kr 에서 확인하시거나 소리나눔캠페인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행사를 통해 9명의 믿음구역 가족들과 소리를 함께 나누었다.

최 귀옥 집사(6-5)

교회 행사

유아 세례식

유아세례식이 6월 1일 (일) 오후 4시에 중강당에서 드려졌다. 이번에는 25명의 유아와 가족과 성도들이 참여 하였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박 원호 담임목사는 사무엘과 한나에 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서약하는 예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시대의 소망이 되기를 바랐다. 자라면서 남을 배려하고 믿음 안에서, 귀한 밀알처럼, 귀한 생명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부족함 없이 커가기를 기도드렸다..

남편의 장점을 20가지나 쓰라고? 이런 어렵고도 심경복잡하게 만드는 과제를 첫날부터 내주시는 목사님이 미울 뻔인데 이걸 어디 가서 하소연하나 싶었다.

장점 20가지라...맘에 안 드는 점 20가지를 쓰라면 누구보다 잘 쓸 수 있을 텐데, 아니 100가지라도 너끈히 쓸 수 있을까 싶은데 말이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신랑도 나와 같은 맘이었는지 나 들으라고 "우리 마누라는 장점은 찾아봐도 쿡쿡만قم도 없어요."라고 혼자 말로 썰렁한 농담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부부데이트는 또 어떻게 한단. 아기가 아직 어린데다가 모유수유중이라 누구에게 맡긴다는 게 아무래도 맘에 걸릴 따름이다. 유아세례교육이 한마디로 짝새다더니 실로 실감이 팍 팍 오는구나.

우리 부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 나름대로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었으나 나의 나이도 있고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자 아기 갖기로 결심하



고 그의 결실로 진원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기를 낳고 나서 육아에 대한 부담과 자유청년(?)이었던 나의 꿈이 없는 밖으로 돌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런지 집에 있는 내 자신에 우울하기만 했다. 일도 다시 하고 싶었고 말이다. 그러나 신랑은 나를 뽕뽕 집에만 묶어두고 "아기나 열심히 키워"란다. 이런 신랑이 너무나 미웠다. 밤에 아기는 깨어 울어대는데 신랑은 옆에서 코를 드르렁 골며 잠만 자고 있으니 내가 아마 축구선수였다면 남편 머리를 축구공 삼아 백만 번도 더 멋지게 날려 주었을 텐데 하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한 적도 많았다는 걸 감히 고백한다.

그러나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는 잠언

리의 잘못들을 하나하나 찾게 되었다. 교육내용중의 목사님 말씀에서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남편과 내가 다른 존재이고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며 남편의 모습을 내생각의 틀 안에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반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려 노력하였다. 지난주에는 과제의 하나로 아기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가까운 산에 다녀왔다. 여전엔 산을 잘 타는 나보다 뒤쳐져서 따라오지 못하는 남편을 은근히 비웃어주었는데 이번엔 남편이 나보다 앞서간다. 그리고 몇 발치 앞서서 나를 보며 웃고 있는 남편의 미소가 저리도 아름다웠던가 생각해보며 그동안 참고 있었던 애교한번 부러본다.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였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아잉~여똥! 같이 가"

우리 지금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절한 시간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기에게 "너 세례 받을래?"하고 물어보고 결정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다루시고자 세례교육에 참가하게 하시고, 우리부부가 완전하지 못함을 아시고 깨달음과 변화의 기회를 주시고자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것이다.

비단 세례교육이 끝나도 아기를 우리의 품에서 떠나보내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충만한 사랑으로 눈이 오면 눈이 와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은, 늘 좋은 주님의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램뿐이다.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실까 조금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최해경 집사(8-1)